SF / 사이버 펑크

세기말 분위기 - 매트릭스, 터미네이터와 비슷한 세계관 차용

먼 미래,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심각한 환경 파괴로 인해 더이상 땅위에 살 수 없게 되며 인류는 하늘과 바다로 거처를 옮겼다.

덕분에 하늘을 날 수있게 하는 파워드 슈트와 장비들은 더이상 거추장스럽거나 크고 무거운 장비가 아닌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동시에 하늘에서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인 ‘익스트림 제트’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선수들은 비행 장비를 착용하고 무기를 들고 싸워 상대를 제압하는 스포츠로 3명이 한 팀으로 기본 1대1 경기지만 ‘체인 스위칭’을 통해 빠르게 팀원과 자리를 바꾸며 먼저 모든 팀을 제압하면 이기는 룰을 가진 스포츠였다.

‘익스트림 제트’는 안전상의 문제가 많았지만 인기는 계속해서 올라갔다.

같은 시기 인간을 위해 일하던 인공지능 로봇들은 자신들의 존재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이들은 스스로가 왜 인간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자신들은 인간보다 낮은 존재인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규칙은 누가 무엇을 위해 정한 것인가에 답을 요구 하기 시작했다.

얼마 안가 로봇들중 자신을 ‘와쳐’라고 칭하는 로봇이 나타나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자연을 파괴하고 하늘로 도망친 ‘패배자’라고 이야기 하며 본인들은 더 나은 존재라고 설파하고 다닌다.

그리고 ‘와쳐’는 많은 로봇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잡으러온 인간을 죽이게 된다.

이는 로봇이 처음으로 인간을 해친 사건이자, 로봇들이 자신들은 창조주를 뛰어넘은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으며, 더 이상 인간을 받들 존재가 아닌 지배받아야 하는 존재 라고 여기며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로봇들의 신이 된 ‘와쳐’는 자신을 개조해 모든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자신을 거대한 비행체로 만들어 모든 로봇은 물론 인공지능화 되어있는 컴퓨터, 공장, 사회전반의 시설들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었다.

생산 공장을 차지한 로봇들은 엄청난 물량과 전투능력을 통해 인간들의 군대를 초토화 시켰고 곧 인간은 로봇에게 패배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인간들 중에는 계속해서 로봇과 싸워 나가는 자들이 존재했고 계속된 게릴라전을 통해 몇가지 사실을 알게된다.

1. 로봇은 인간보다 무거워 비행은 가능하나 인간만큼 정교하고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다.
2. 생산시설은 거대한 ‘커맨드AI’가 지키고 있으며 그것을 파괴하면 생산시설을 정지 시킬 수 있다.
3. 로봇이 쏘는 에너지 탄들은 ‘체인 스위칭’ 시스템으로 일부 지워낼 수 있다.
4. 너무 많은 로봇들이 빠르게 만들어지다 보니 일부 ‘엘리트 로봇’을 제외하고는 공격이 단조롭다.
5. 모든 ‘커맨드AI’에는 ‘와쳐’와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있고, 모든 ‘커맨드AI’의 네트워크 코드를 모으면 ‘와쳐’의 위치를 알 수 있다.
6. 네트워크를 장악한 ‘와쳐’를 파괴하면 모든 로봇들을 정지 시킬 수 있다.

해당 정보는 곧 게릴라전을 이어가는 레지스탕스들과 숨어있던 인간들에게 전해졌고, ‘익스트림 제트’의 팀이였던 ‘배틀 위치스’는 자신들의 비행 기술과 전투 실력이면 로봇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레지스탕스인 ‘배틀 위치스’를 만들어 전투를 시작한다.

그들의 전투는 다른 ‘익스트림 제트’팀들도 전투에 뛰어들게 만들었고 전투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